

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9. 23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·과장 황윤언, 사무관 박현근, 주무관 조승현 ·☎ (044) 201-3337, 3338, 3347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 증가는 최근 보증가입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, 보증기관의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.
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의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주목받으면서, 최근 보증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
* (보증실적) ('16) 5.2조원 → ('17) 9.5조원 → ('18) 19.0조원 → ('19.8) 17.1조원

- 이에 따라,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도 자연스럽게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.

* (대위변제액) ('16) 26억원 → ('17) 34억원 → ('18) 583억원 → ('19.8) 1,638억원

- 이와 같은 보증가입 규모와 대위변제액의 증가는 지속적인 보증 발급요건 개선, 보증료 인하 및 적극적인 홍보 등 서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.

-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부분 회수가 가능한 구조이며, 집주인의 HUG에 대한 채무는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 등을 통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- 최근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른 보증기관 HUG의 위험(리스크)은 현재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, 향후에도 보증 발급 규모, 사고발생 추이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또한,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한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가입을 제한하여 보증기관의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인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입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한국일보 등, 9.23(월)) >

◆ HUG ‘집주인에 떼인 전세금’ 올해만 1700억원 대신 갚아

-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,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(792억원) 대비 2배 이상 증가, 2016년 34억원과 비교하면 50배 가까이 증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박현근 사무관(☎ 044-201-33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